

'하던 대로' 더이상 안 통한다

좌담

사찰경영,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없기 때문에 김제에 있는 사찰에 전국 각지의 신도가 있습니다. 각 종단별로 신도들의 지역연고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신도가 부족한 사찰은 더 열심히 포교하면서 도시사찰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로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병진 사찰이 개별적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종단 차원에서 사찰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일문 사찰의 경제활동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고려시대에는 사찰이 금융이나 구휼에 나섰는데, 나중에 양조업이나 고리대금업으로 변질돼 사회적 지탄을 받았어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제활동 참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춘다면 '생산불교'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경제활동 참여의 폭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이익금을 공공사업에 회향토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차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 합니다.

■도원 불교계에는 유휴 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니다. 요즘 부동산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산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법적·제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만, 이 자산을 활용하여 불교의 생산성을 키우는 일이 시급합니다.

군산의 모 교회가 시내에 있던 교회건물을 팔아 외곽지역으로 옮기면서 40억원을 남겼습니다. 그 돈을 교단발전을 위해 재투자해서 예전보다 더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유휴부지를 매각하거나 활용한다면 이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일문 유휴 부지는 사실 종단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사찰에서 유휴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종단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승인하는 형식이 어떻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또 종단에서는 유휴 부지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외부 컨설팅업체에 의뢰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보장제를 팔자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수익사업' 이 전부는 아니다

■도원 사찰이 생산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익사업을 한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 교육, 출판, 의식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바뀌어야 실

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수행하는 공간, 기도하는 공간이라는 관념을 깨야 해요. 사찰은 휴식, 업무, 기도, 교육, 의식, 봉사 등 모든 것이 이뤄지는 종합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최재동 변화의 힘은 불교를 구성하는 사람에서 나와야 하는데, 불교인이자 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최근 가톨릭이 뜨는 이유는 70~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면서 정의를 실천해왔고, 사회적 약자나 낙오자를 포용하면서 가톨릭에 대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불교도 사회참여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양적으로 기독교와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발상을 전환하면 자립경제 실현을 위한 방법은 수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찰 주변의 잡목을 제거하고 조경수를 심어 이를 수익원으로 삼아봅시다. 큰 땅이 없어도 가능한 수익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일문 지금 갖고 있는 자산으로 당장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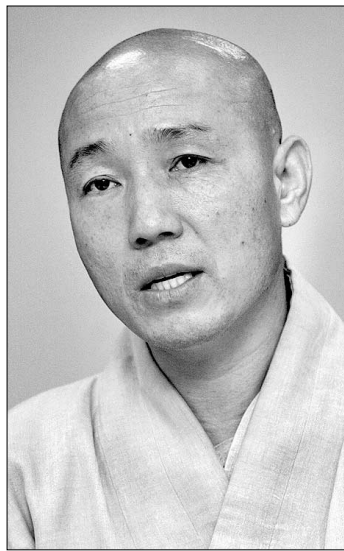
기 이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원 사찰이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찰에 다니는 신도는 물론 종합학교와 같은 유관기관도 해방이 됩니다. 동국대에 사찰인테리어를 연구하는 학과를 개설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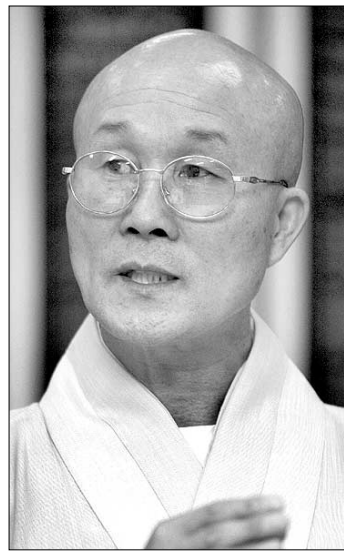
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사부대중의 원력을 집중시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냉정한 이야기이지만, 변화하는 사찰은 발전할 것이고 변화하지 않는 사찰은 퇴출될 것입니다.

■최재동 지금 이렇게 사찰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좀 더 공론화되어 불교와 사찰이 변화를 꾀하는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스님들만의 역할이랄 수도 없고, 재가불자들의 역할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부대중이 모두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도원 대승사상은 소송사상에 견주어 보면 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송의 기준에서 봤을 때 대승은 불교가 아니지요. 신라는 원광, 원효 스님이 없었더라면 삼국을 통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장율사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장율사의 가르침으로 보면 원광, 원효 스님의 가르침은 부처님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새로운 이노베이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불교와 사찰에 가장 절실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문 스님



도원 스님



구병진 박사



최재동 대표

일문 스님

종교의 사회 기여 중요, '기부제도' 활용할 때

도원 스님

종단 유휴 부지 활용, 생산성 키우는 '경영' 시급

구병진 박사

중장기적 계획 수립 후 사부대중 원력 집중, 실천

최재동 대표

사회적 환경 잘 활용하는 갖가지 방법 개발을

촉하고 합니다. 신도가 1000만명인데 정말로 훌륭한 인재가 없는 것일까요? 월급 100만원도 안 주는 사찰에 좋은 인재들이 오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인데, 사찰은 자본주의와 동떨어져 있어요. 종교가 사회와 함께 맞춰가지 못한다면 진정한 종교가 아닐 것입니다. 사찰도 교리에 입각해 자본주의에 맞는 체질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문 종교가 사회에 기여하지 않으면

비교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구병진 불교가 회향을 잘 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립경제의 목적도 종교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의 정화에 있듯이 회향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영마인드, 경영기법을 도입하지는 것도 생각과 체질을 바꾸어 자립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도원 전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답습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도로 자립경제를 피

착할 수 있는 수익사업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채식식당이 좋은 예입니다. 우리 사회가 육식문화로 바뀌었는데, 폐해가 심각합니다. 음주문화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때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화를 갖고 있는 사찰에서 채식식당을 모델로 운영한다면 사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개선될 거예요. 물론 이전에 이같은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감대가 형성되

사람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잔불가를 연구하는 불교음악학과도 사찰의 변화, 크게는 불교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지요.

■일문 요즘 우리 기업들의 기부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효과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역할도 불교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기부는 사회단체에 직접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단체의 활동의 폭을 좁힐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불교계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허브' 재단을 만들어 기부를 받는다면 그 효과는 클 것입니다. 모았던 기부금을 수익사업을 벌이는 단체에 분배하는 허브 역할이야말로 종교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각 사찰이 연대하여 '아름다운 가게'를 벤치마킹하여 신도들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모아 사회에 회향하는 매장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구병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찰이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각 사찰은 중앙

'변화' 발맞추는 안목 키워야

■일문 어느 스님이 프랑스 가톨릭 수도원에서 공부할 때 프랑스 전역의 수도원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10년 후 다시 프랑스에 가서 수도원을 돌아보니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한 수도원은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사회변화에 맞춰 변모한 수도원만 남아 있었습니니다. 앞으로 불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처럼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나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재동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주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사찰이 포교활동을 벌일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무상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면 변화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잘 활용하는 갖가지 방법들이 앞으로 많이 개발되길 기대합니다.

정리=박병영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www.sgsb.ac.kr

대학원 학생모집

I. 모집학과 및 과정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대학원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전 공	취 득 학 위
불교학과	불 교 학	명상학 석·박사
	명 상 학	
상담심리학 과	상담심리학	상담학 석·박사
	자아초월상담학	
심신통합치유학과	요기치료학	심신통합치유학 석·박사
	심신치유교육학	

II. 지원자격

1.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부전공 무관)

2. 박사과정은 해당 전공과 관련된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취득예정자

III. 전형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 2006. 10. 23(월)~ 11. 2(목)
- 장소 : 본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www.sgsb.ac.kr)

2. 전형일시 : 2006. 11. 4(토) 09:00

3. 전형방법 : 면접 및 구술고사

4. 합격발표 : 2006. 11. 10(금) 10:00

IV. 특전

1.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2. 불교학점공 : 서울대, 고려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불교학과와 연계 교육, 우수학생 전의 장학금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890-2800(대) 02)890-2811~2(화) / Fax 02)890-2899

우) 153-8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교수 초빙

1. 초빙분야

학 과	전 공	인 원	취 득 학 위
상담심리학 과	자아초월상담학	1	비정년트랙전임교수
심신통합치유학과	심신치유교육학	1	비정년트랙전임교수

2. 지원자격

가.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다. 신심이 든든한 불교신자

3.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연구실적 목록 각 1부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다. 경력증명서 각 1부 라. 연구실적물(2002. 3. 1. 이후 발표물) 각 1부 마. 석·박사 학위논문 각 1부 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4. 제출기간 : 2006. 10. 23 ~ 11. 2. 17:00

5. 제 출 처

우) 153-831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행정실

6. 기타사항

가. 우편접수는 2006.11.2.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외국어로 된 각종증명서는 본인인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라. 전형결과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개별통지함 마. 임용직급은 자격기준에 따라 결정함 바. 불교 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 www.bojangsa.co.kr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회원 모집

- ◆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 ◆ 믿을 수 있습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부인가, 보문중·고(대전),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이사장:전덕혜스님) 소속의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 ◆ 시설이 뛰어납니다.(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
- ◆ 수익금은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됩니다.
- ◆ 교통이 편리합니다. 전철1호선(관악역) 도보 10분거리
- ◆ 주차가 편리합니다. 자체주차장 및 공용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 ◆ 좌절용 우백호가 분명한 명당입니다.
- ◆ 안양예술공원에서 가족소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02)534-4444, (031)471-3322

우)430-80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 324-10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수익잉기본재산 외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의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